

## English Worship Service

[Westminster Hall, 11:15 am]

[Pastor: Daniel J. Kim]

- Prelude ..... Pianist
- \* Call to Worship ..... Pastor
- Praise & Worship ..... Praise
-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 Doxology ..... Congregation
- Congregational Prayer ..... HeungSoo Lheem (Deacon)
- Offering ..... Congregation
- \* Offering Hymn ..... Congregation
- \* Offering Prayer ..... Pastor
-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 Scripture Reading ..... Genesis 2:1-3 ..... Pastor
- Anthem ..... Jerusalem Choir
- Sermon ..... "Sabbath-Rest of God" ..... Pastor
- \* Hymn ..... 43 ..... Congregation
- \* Benediction ..... Pastor
- \* Lord's Prayer Song ..... Congregation

(\* Please stand)

### “Sabbath-Rest of God”

According to Genesis 2, with the completion of the work of creation, God now enters into a state of rest (sabbath). This does not mean that God is no longer in the business of work. He certainly continues His work of providing for and sustaining His creation. He is also engaged in the work of redemption. Jesus did say,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this very day, and I, too, am working" (Jn.5:17). But God's initial work of creation has now been completed. The statement, "Thus the heavens and the earth were completed in all their vast array" (Gen.2:1), thus echoes the initial statement,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1:1). It accentuates the fact that what began with a state described as "formless," "empty," and "darkness," has now been radically transformed into a state of structure and order, fullness and brilliance. In other words, God has done a most excellent job of constructing and facilitating His creation with all the necessary components, both practical and aesthetic. God's own evaluation of His handiwork was an absolute sense of satisfaction: "God saw all that he had made and it was very good" (1:31). Thus, the fact that God has "finished" His work and "rested" from His work (2:2)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ivine rhythm in terms of work and rest, business and pleasure, and creation and recreation. The primary purpose of sabbath, then, is to simply enjoy the marvelous products of His creation and the glorious presence of God. According to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Q1):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It is through sabbath that humans and all creation are meant to enter into rest in order to truly receive His blessing and participate in His consecration (making "holy") (2:3).

#### Announcements

We warmly welcome all newcomers to our worship service.

We invite you to join us for fellowship at Room 104 after the service. If you have any special prayer requests, please submit them in the prayer box located at the rear, so that we may continue to pray for you.

Sunday Study Groups are as follows:


- 9:30 am (Room 104) - Spiritual Disciplines and Intercession (led by Pastor Daniel)
- 1:30 pm (Outdoor Cafe) - Youth Bible Study (led by Brother Jimmy Eppley)
- 1:30 pm (Room 902) - Young Adult Bible Study (led by Pastor David John)
- 1:00 pm (Room 601) - Adult Bible Study (led by Brother Ranjan)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학교 예배 및 부서안내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603 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603 호
유년부	오전 9시	701 호	예 바다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초 등 부	오전 9시	601 호	성 경 공 부	오후 2시-3시	603 호	
유초등부 연합 2부예배	오전 11시20분	701 호	장 년 1 부	오전 10시	본 당	
꿈나무영어성품스쿨	오후 4시	701 호	장 년 2 부	오후 3시30분	702 호	
어린이 찬양예배(주일)	오후 5시		소 요 리 문 답 부	오전 10시20분	903 호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 호	신 앙 강 좌 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중 등 부	오전 9시	501 호	새 가 족 부	원 입 반	오전 10시20분	602 호
고 등 부	오전 9시	101 호		전 입 반	오후 12시40분	
청년 1부	오후 2시	101 호	세 례 교 육 부	1 부	오전 10시20분	607 호
청년 2부	오후 2시	101 호		2 부	오후 12시40분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1 호	직 분 자 양 성 부	오후 12시40분	606 호	
			새 가 족 환 영 부	오후 12시40분	802 호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b>서울교회 QR코드</b>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유문건 박영준 조원영 서준권      교육상담목사 양채라      전도사(전도담당) 배경애 교육목사 임규현 심진희 정대은 장재원      협동목사 김철홍 김다니엘	

전도사(교육담당) 구분혜 이진광 고수은 Vung Zam Cing, David John Khokhar  
 선 교 사 강아곰주하나, 김모세이하나, 김원호동아시야, 전광혜(서아시야), 이은준강혜정, 박궈전, 박영준(카자흐스탄) 스프로모바리요, 조남혜, (영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카보디야),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누(인도), 정상진홍성인(말라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리(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행영(러시아), 김인사(현해목(아르헨티나), 홍남가(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나형 · 오정녀(캐나, 김종알(백순미(타이(노동자), 훌쿠아 망 탕, 썬 코 카, 마이, 랄 사무알, 레이, 난, 쌍 싹다 사우, 키움 랑, 흐라, 라비,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마카엘(미얀마 필리핀, 프르산토 수레시 수바식 이경섭 알로르 비사루보도 보디소프 린름 수만준(말라위세), 김태식 윤영교,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탁수(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b>대한예수교 회</b> <b>장 로 회</b> <b>서울 교회</b>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b>이 중 윤</b>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b>박 노 철</b>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By the Grace of God ")

#### ■ 고전 15:9-10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단어인 것만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기증에 도달하지 못한 자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 거저 값없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호의, 선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감작되는 순간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구원을 얻은 이후,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은혜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주의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의 길을 선택해야하고 '율법주의의 길은 벗어나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도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한 만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1. 율법주의의 길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놀라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로서, 예수님을 분명히 믿긴 않지만 유대주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 @ =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다른 복음이라 표현하였고 그가 전한 것과는 다른 복음을 받아드려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게 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매우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 @, 즉 십자가에 우리의 공로나 자랑을 덧붙이는 이것은,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교란시키는 악한 일기에 사도 바울은 그토록 격분하여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은혜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힘을 주셨단 말인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높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복음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당연한 반응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2. 은혜의 길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는 사도가 될 사람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바כה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던 스테반 집사를 죽이고 수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둔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심을 댔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복음의 금자탑을 쌓아올린 사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그래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자랑과 존귀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 맺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교회가 아파하고 무너지고 능력을 잃은 이유는 한국교회가 교만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길로만 나아가 때 그곳에는 겸손과 사랑과 용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십자가의 은혜의 깃발을 높이 올려야 합니다. 개혁주의자들이 외쳤던 Soli Gratia, '오직 은혜만으로 를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다시 살게 되고, 다시 한 번 부흥의 때를 보게 되며,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겸손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조성식 장로
II	오전 11시20분	서준권 목사	신용식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오광환 장로

인레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25:4-5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5(3)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5(시 27)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494(188)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엡 2:1-9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헌, 선교헌금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은혜의 향기 박노철 목사
(The Fragrance of Grace)	
* 찬 송 Hymn	149(147)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찬 양 예 배

-영어예배부 헌신예배-

오후 5시	인도 임흥수 집사, 설교 감다니엘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42:11 인 도 자
찬 송	(영어예배부 찬양인도) 다 합 께
기 도	David John 목사
특별찬양	영어예배부 팀
성 경	렘 18:1-6 Eopley 전도사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하나님의 손으로 “ 설 교 자
* 찬 송	425(217)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II부 오후 7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I부: 김예환 권사 II부: 최미희 권사
성 경	행 16:6-1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설 교 자

##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당 2층
설 교	장석남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차주연	임아름	윤주일	가브리엘		임아름
II 부	할렐루야	고성진	김현정11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류총기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병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최수황	박수강	윤주일	오늘 찬양예배는 영어예배부 헌신예배로 드리며 영어예배부팀에서 준비한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	특 별			
수요 I 부	호 산 나	구민영	김현정15	홍혜란	찬 양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김진형	박승기				

##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

### 교 회 소 식

#### ◆ 모 입

- 도르가 전도회 월례회 / 25일(주) 오후12시40분 706호
- 70인 전도대 임원 및 팀장 모임 / 25일(주) 오후2시20분 802호
- 제1권사회 9월 직장 월례회 / 25일(주) 3부 예배 후 802호
- 9월 선교위원회 / 25일(주) 오후4시 903호
- 제2권사회 야외 예배 / 27일(화) 오전9시30분 교회출발(화답숲)
- 제1권사회 9월 월례회 / 28일(수) 오후12시40분 501호
- 1교구 연합다락방 모임 / 30일(금) 오전10시30분 501호
- 전 도 / 25일(주) 주일전도 : 전교인(1,2,3부 예배 후)

주일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날입니다. 나가실 때 각 층 로비에 비치된

순례자와 전도지를 가지고 이웃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7일(화)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축호팀(대치삼성 도곡렉슬 롯데캐슬 진달래 단지 I-park, 삼성동힐스테이트 개포주)

오전 10시 70인전도대 화요기도팀(609호)

28일(수)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수요기도팀(609호, 문서전도팀603호)

오후 1시 70인전도대 특례생 학부모 기도팀(903호)

오후 1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노방팀 에스더 전도회(607호)

오후 8시 70인전도대 수요야간팀 스테반화(한티공원)

29일(목)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축호팀(은마 미도, 대치현대 역삼역키 개포주공,7단지), 래미안 대치 팰리스

오전 10시 70인전도대 목요기도팀 603호(11시 202호)

10월1일(토) 오후 3시 70인전도대 토요노방팀 엘리야 선교회(한티공원)

#### ◆ 알 림

- 새가족 등록 /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의 대화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호-칼빈홀)
- Baby-sitting 운영 / 수요예배와 주일오후 찬양예배에 참석하는 유아를 위해 403호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베들레헴 홀)
- 영어동시통역 (통역: 김사라 권사) / 2부 예배 시 외국인을 위한 영어동시통역이 있습니다

동시통역이 필요한 분은 한편에서 안내위원들에게 Earphone을 받아 사용하신 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Simultaneous interpretation earphones are available to help your service,

please ask an usher at the door to assist you』 (Interpreter : Sarah Kim)

-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상담 주중에도 상담 가능 / 주일 오전 11시30분-오후 1시 (310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뒷면으로 계속➡

##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김춘자1	14교구	마가복사팀	앤네팀김수진	김인복	교육2국	청년2부	본인	상현진	교육2국	청년1부	본인
윤정분	10교구	마가복사팀	앤네팀윤미영	유선영	교육2국	청년1부	본인	박범진1	교육2국	청년1부	본인
장석희	1-6	보보	사랑팀	김민수7	교육2국	청년1부	본인	이정훈6	교육1국	초등부	재팀야규

앞면에서 계속

- 의료 상담 / 박경정(치과) 주일 오전10시30분 - 오전1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902-5922

#### ◆ 장 례

- 故 강의웅 님(13교구 강희정 집사의 부친 이상윤 성도의 장인) / 9월17일(토) 별세, 9월20일(화) 발인

- 故 방계운 권사(2교구 박현미 집사의 모친) / 9월21일(수) 별세, 9월23일(금) 천국환송예배

## 유일한 수습책

애꿎은 보따리만 바다에 던진다고 풍량이 잔잔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죄를 감추려는 요나의 낚은 수법에 불과하다.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란과는 무관한 듯 일부러 잠든 체하거나 태연한 체하는 위선자의 하품은 가증한 것이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잔꾀도 버려야 한다. 제비를 뽑아보면 결국 다 드러날 것이다. 변명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칠면피라는 것을 드러낼 뿐 아무이익도 못된다. 사태 수습을 위한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들어 용상에"라고 버틴다. 평지풍파를 일으킨 장본인이면서 전혀 책임 의식도 미안한 것도 느낄 줄 모른다. 그렇다고 "너를 들어 바다에"라고 성급하게 울화통을 터뜨려서도 안 된다. 한사람에게만 돌을 들어 칠 만큼 우리 모두가 의인은 아니다.

”주여, 바다에 던져야 할 오늘의 요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입니다.“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을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성 수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